

하나님도 사람도 취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성경말씀: 눅18:9-14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모르니라. 따라서 목사가 정말로 위험한 데 빠지기 쉬운 사람이다.

지난 금요일,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당함 지적, 설명하는 가운데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어와 표현 사용, 원고에는 없었는데 이단 파동 때문에 힘들었는지 소소한 데서 큰 실수 내 처가 보통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고양이 앞의 쥐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1시간 내내 혼계 듣고 물러남. 올해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 시리즈, 그런데 내 인격이 여전히 깊은 수렁 속에 있으니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됨, 앞으로는 더 신중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강단에 섰다.

딤후2:24-25, 주의 증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오늘 < > 내 취약함을 인정한다. 고치려고 한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핵심과 목표: 하나님도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데 옆의 사람들이 싫어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럴까?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생각은 완벽하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갖기 어렵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불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눅6:26).

목사, “목사 사모가 항상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고 떠받들면 교회가 되겠는가?”

그나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부부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를 완벽하다고 포장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위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고백하고 여러분 중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남은 비결, 이르지 못한 분들은 대개 교회를 떠남

나는 자기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거짓 대언자들, 좋은 말만 들으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위선과 가식으로 꾸민 자들만 넘쳤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위선과 교만, “하나님보다 의롭다”

눅18:9-14는 위선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극명히 보여 준다.

9절: 두 부류의 사람(9): 1.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2. 멸시당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구체적으로 전자는 바리새인, 후자는 세리

바리새인: 교리적으로 정통파(성경기록, 영과 부활 신앙),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향유 옥합 여인 사건에서 보듯이 자기의 빛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자(7:40-50), 잔치에서 좋은 자리만 탐하는 자(14:7-14),

눅15장의 큰 아들처럼 자기 것만 신경 쓰고 타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자(15:25-32), 그런데 이들은 결국 지옥에 감, 부자와 나사로(16장), 자기의 부족한, 취약함, 죄인 됨 등에 예민하지 않음

10절: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감: 기도하러 감

11-12절: 바리새인의 기도: 홀로 서서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하고는 큰 소리로 기도함(11-12), 자기자랑설교

원래 유대인들은 속죄일에만 금식(레16:29), 그는 일주일에 2번, 가장 작은 것도 십일조(마23:23)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다. 자신은 의인이라고 믿고 남을 멸시함.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13절: 세리의 기도(13)

14절: 하나님의 판단, 내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자다

결론(14):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예와 그들의 복을 보여 주신다.

어린아이들(15), 막지 말라(16),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17).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놀면 안 된다. 다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믿음이 있고 의지해야 한다. 14절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사람의 어떠함은 영원까지 그의 운명을 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이런 성품을 우리는 취약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취약함

브레네 브라운의 '취약함의 파워', Power of vulnerability(*), 휴스턴 대학교 연구 교수 임상 심리학자 20년 가까이 수치심, 취약성, 완벽주의, 두려움, 불안 등 현대인이 겪는 감정의 근원과 이를 다룰 방법을 연구해온 심리 전문가.

브라운, 4-5년 전에 유명한 TED talk(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에서 '취약함의 파워'와 수치심에 귀 기울이기 등의 강연을 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인물(2500만 명 이상 시청)

1. 취약하다는 것의 힘 _ TED 강의 브레네 브라운

2.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_ TED 강의 브레네 브라운, 수치심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 권의 책

그녀는 불신자, 그녀가 주장하는 '취약함과 수치심의 파워'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므로 인본주의 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핵심은 기독교와 거의 같다.

취약하다는 뜻: 상처를 받기 쉽다. 비난받기 쉽다. 약점이 있다. 우리말 취약은 '무르고 약하다'

어린아이를 보라. 얼마나 취약한가. 부모만 따른다(눅18:15-17).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자들의 것

브라운은 10년 이상 연구: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

행복한 사람, 자신 있게 사는 사람: 자신의 취약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사람

공통점 1.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불완전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브라운은 용기(Courage)의 라틴어 어원이 심장을 뜻하는 'Cor'이며 이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다'는 뜻을 보여 준다. 즉 자기의 취약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나, 내 가족은 다 완벽하다고 믿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자존감이 없음의 반증

공통점 2. 그 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교제 면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버리고 솔직하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때문. 바로 이것이 진정한 연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것이 크리스천 교제의 핵심

불행한 사람: 반대로 취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속마음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완전주의자, <마음 가면>을 쓰고 행동하므로 인생이 불행하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회개

바리새인: 완벽주의자, 취약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 멸시

그 결과 땅에서 진정한 친구가 없다. 돈과 명예 등은 넘칠지 몰라도. 하나님도 "그런 사람 나도 싫다."

세리: 자신의 취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남을 보고 판단할 여유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슴을 친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가장 취약한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명심해서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 준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 매일 간음, 착취, 거짓말, 속임, 증오, 분노 등 불의한 일을 회개, 3개월, 1년.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 나쁜 것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반면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의 뜻, "나는 원래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착취, 간음, 음주 등 이 모든 악한 일 고백하지 않았다.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 큰 회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다(행11:18). 욥42:6 내가 나 자신을 몹시 싫어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음을 보고 원초적 취약함을 고백할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취약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Almighty, 연약함 등을 볼 수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면에서 취약하시다.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 죄성을 인정하며 나올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면에서는 무한대로 취약하시다. 즉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결과 하나님의 취약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히10:16-18).

눅15장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에 취약하신 아버지를 보여 주셨다.

그 결과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주게 하셨다.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의 멸시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취약한 자들을 도우신다(롬8:26). 신음할 정도로 취약함을 보이시며 사랑 구원과 성화는 모두 취약함의 열매이다.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자: 위선자, 교만자, 특징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취약함이 없다.

취약한 성도의 특징: 공감

독립교회 성도들의 특징: 자아가 심히 강하다. 나는 취약함이 없다고 생각함. 내가 대표적인 사람
킹제임스성경, 모든 교리 완벽

정말로 그럴까? 여러 성도들을 보아 왔지만 삶이 더 불행한 사람들도 더 많이 있다(극도의 교만). 그들의 특징: 교제가 없다. 안 된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공감이 안 된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면 곧바로 공감이 생긴다. 먼저 하나님과의 공감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

“제가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이혼할 것 같아요.”, 취약함을 표현하는 것 공감을 못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군요. 정신 차리고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다른 한 부류는 공감한다. “어떻게 하지요.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같이 손잡고 울어 준다.

기쁜 일이 있으면 웃어 준다. 렉크맨 목사의 오순절 집회 참석 친구 이야기(롬12:15).

부부 관계도 취약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면 좀 더 쉽게 해결된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려고 해야 한다.

성경 읽기보다, 교회 일보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부모 자식 문제, 성도들 간의 불일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취약한 죄인들을 치열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다.

취약함의 파워: 인도

나의 취약함이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든다. 시51편의 다윗, 간음 사건, 취약함 발견, 회개, 시51:10, 12, 13, 그러므로 취약함을 발견한 성도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취약함의 파워이다.

이것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취약한 데로 떨어지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 취약함 이후에 부활의 권능(고후13:4; 12:9-10)